



설 특수 맞아 분주한 먹집 25일 설날을 앞두고, 제주시 노형동 한마음떡집에서 밀려드는 주문에 맞춰 가래떡을 만드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이상국기자

인구 순유입 속 제주청년 탈출 행렬

작년 20대 순유출 1471명으로 2007년 이후 최다
2018년 이후 4년 연속 전출인구가 전입보다 많아
지난해 순이동인구 3917명... 전년보다 1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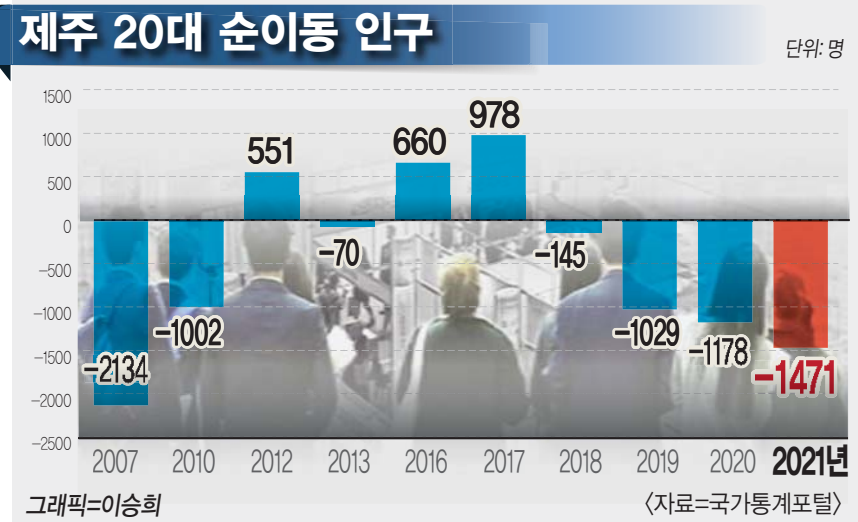
작년 한해 제주로 4000명 가까운 인구가 순유입됐다. 하지만 20대 인구는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아 1500명 가까이 순유출되는 등 젊은 층의 제주 탈출행렬이 4년 연속 지속되고 그 숫자도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대학 진학 등 학업을 위한 제주 전출과 함께 젊은층이 선호하는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이 20대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통계청의 '2021년 국내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작년 제주 순이동(전입-전출) 인구는 3917명으로 전년 대비 16.0% 증가했다. 9만 4979명이 전입했고, 9만 1062명은 전출했다. 도내 순이동인구는 2017년 1만 4005명에서 2018년 8853명, 2019년 2936명으로 감소했다 2020년 3378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후

작년까지 2년 연속 늘었다. 작년 순이동인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10대와 20대 인구는 전입인구보다 전출이 더 많아 순유출됐고, 나머지 연령대에선 모두 순유입됐다.

특히 20대 인구는 작년 1471명이 순유출돼 2007년(2134명) 이후 14년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순이동인구가 해마다 1만 명이 넘었던 2014~2017년에는 20대 인구도 해마다 적게는 404명에서 많게는 978명이 순유입됐다. 하지만 2018년 145명이 순유출된 후에는 2019년 1029명, 2020년 1178명에 이어 작년까지 4년 연속 20대 순유출 규모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20대 인구의 유출 이유는 작년 제주지역 청년 실업률에서도 추정



해볼 수 있다. 작년 도내 15~29세 실업률은 7.8%로 통계청이 연령대별 실업률 통계작성을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작년 도내 전체실업률(3.1%)을 감안할 때 젊은층의 일자리난이 훨씬 더 심각했다.

작년 도내 10대 인구는 110명이 순유출됐다. 순유입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대(1711명)이고 이어 40대(1414명), 10세 미만(1292명),

50대(688명), 60대(296명), 70대(63명), 80세 이상(34명)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전입자의 27.6%는 경기에서 이동했고 서울(25.3%), 부산(7.3%) 등 3개 지역에서 전입한 이들이 60.3%를 차지했다. 도내 전출자가 이동한 지역도 비슷해 서울(25.6%), 경기(25.4%), 부산(7.1%)으로의 이동이 절반을 넘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개발공사 제주시 도련동에 신사옥

2025년 12월 준공 예정

제주개발공사가 제주시 도련동 삼수전 인근에 신사옥 부지를 확보했다.

제주개발공사는 신사옥 부지로 제주시 도련1동 2789-1번지 외 3필지(1만 4962㎡)를 매입(비용 113억 3000만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개발공사는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371억원을 투입해 건물면적 9000㎡규모의 신 사옥을 건립할 예정이다. 공사는 앞으로 건축설계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 2023년 6월에 착공해 2025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제주개발공사는 지난해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호텔용지를 매입해 사옥을 신축하려고 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는 “신규 업무와 인력의 지속적인 증가로 업무공간과 회의 장소 등이 협소해 많은 불편이 나타났고, 사무공간 임차(42억원)로 인한 재정부담 역시 증가했다. 이에 신규 업무공간 확보가 필요해서 신 사옥을 추진하게 됐다”며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미래형 오피스 사옥으로 건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대모기자

공공기관 공사·용역 정보공개 제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도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 건설 공사, 2억원 이상 용역에 대한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대상 정보는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별 과정(타당성 조사, 투융자 심사 등)에서 발생하는 행정심의 결과에 관한 사항, 입찰공고 및 입찰참여 현황, 개찰 결과, 계약 체결 및 계약 내용 변경, 감리·감독·검사(하자검사·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도내 건축허가 5년 만에 상승세 전환

2021년 208만여㎡... 전년대비 20.1% 늘어

제주지역 건축 허가 면적이 5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도내 건축 허가 면적은 208만 8334㎡로 전년 173만 8865㎡보다 20.1%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내 건축허가 면적은 2016년 474만 6216㎡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5년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용도별 건축허가 면적을 전년과

비교 하면 공업용이 252.7%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이어 공공용 57.1%, 주거용 44.4% 순으로 증가세가 컸다.

제주도는 지식산업센터 신축과 함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이 증가세를 주도했으며, 공공부문 건축허가 면적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문화교육·사회용 건축물은 23.3%, 상업용 건축물은 7.5%씩 각

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상권 경기 침체와 소비 감소가 이들 용도의 건축 허가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창민 제주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공공분야의 선제적 재정 투자에 힘입어 건축허가 면적은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 코로나19 신규 47
25일 <17시 기준> 누적 5081

謹賀新年

2022

따뜻하고 흥흥한 설 명절 되십시오!

코로나19 위기 극복, 도민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1 설 연휴 가족(친지) 모임에도 6인까지만

02 '백신 접종(3차 접종 포함)'으로 부모님 안전 지켜드리기

03 마스크 착용 및 의심 증상 있을 시 코로나 진단검사 받기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